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건설에 큰 유익이 되기를

- 허순길 대학원장

고려신학대학원 학우회 학술지인 고려신학보 제29집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속에 담긴 심오한 뜻을 발굴해 내어 밝히는 아름다운 학문적 노력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낸다.

신학은 모든 학문의 모체이며, 학문중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른 신학에 뿌리를 둔 학문만이 인간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주며 유익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신학만이 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준다. 개혁주의 신학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연구의 유일한 원천과 자료로 삼고, 인간의 사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무리 가치 있게 보여도 이를 전적으로 거절한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의와 진리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엡4:24). 이런 신학의 터 위에 선 신앙이 바로 사도적 신앙이요, 언제 어디서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이다. 이런 신앙은 정(靜)적인 상태에 결코 머물지 않고, 항상 능동적이며 활력을 나타낸다.

지난날 개혁주의 선진들이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의 신앙을 보였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설립자들, 우리들의 선배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찬미하는 신앙생활을 보였었다(행16:25). 이분들의 신앙은 참 개혁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었던 것이다. 이런 선배들의 뒤를 이어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은 신학도들은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신 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더욱 계발하고 발전시켜 방향을 잃어 가는 한국교계에 참된 신앙과 생활의 길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 학보에 실린 글들이 신학도들 세계에 개혁주의 신학연구를 크게 촉진하고, 여기 밝힌 진리가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 건설에 큰 유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다.



I. 개혁주의 신학대학원 학술교류 발표논문

개혁주의, 개혁해 가는 교회

본 논문은 지난 1997년 11월 13일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총회신학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의 목사 후보생들이 함께 한 “제1회 개혁주의 신학대학원 학생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개혁주의의 핵심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이 원리들이 개혁 교회의 현장(신학교와 각교회)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으며 개혁주의 원리들에 비추어 개혁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지도교수 / 유해무
- 연구위원 / 김재윤, 현광철, 송병주, 이동현, 배현철, 박만영, 황경진, 조상우, 김성민, 방영균

개혁주의, 개혁해 가는 교회

I. 서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전세계에는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그들의 이름에 포함시키고 있는 수 많은 교회들이 있다.¹⁾ 개혁주의 교회의 일원인 우리로서는 일면 매우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그들의 간판 너머를 들여다 보게 될 때 우리는 곧 의구심과 혼돈 속에 빠져 들게 된다. 오늘날 개혁의 역사 속에 남겨진 수많은 개혁주의의 문패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직도 '개혁주의'가 서로의 주소를 차별하려는 의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단어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우리는 개혁주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은 선명함을 추구함이며 그것을 고수함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주의의 정의를 고찰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또 한번의 구별과 분리가 아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의 정의들과 원리들 속에 담겨있는 공통점들을 기초로 개혁주의를 논하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개혁주의가 배타적으로 어떤 대상과의 차별성을 말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개혁주의는 지키고 고수되어야 할 '유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는 장롱속에 깊이 감추인 유산을 들여다보며 느끼는 소유의 만족감과 고수의 의지를 확인함에 있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고착의 상태에서 풀어내어 그 고유의 활발한 활동성을 가능케하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교회'로 불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역동적 움직임 속에서만 개혁주의는 자신의 정의를 지켜갈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개혁주의는 명사적 개념 규정을 통해 정의된다기 보다는 동사적 활동을 통해 자신을 입증할 수 있을 뿐이다. 개혁주의는 교회의 참된 교회됨을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우리는 말씀 중심,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 공교회적 신앙고백이란 세 원리를

1) yahoo를 통한 검색만으로도 homepage를 가진 그룹 206개를 찾을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란 구도 속에서 살피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개혁을 말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성경 말씀 중심

종교 개혁 당시 개혁주의는 중세 로마교회가 교회제도와 전통과 기구의 권위에 치중함으로써 상실했던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했다. 루터는 성경만을 하나님의 권위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그는 외경을 정경에서 제외했다. 그의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었다. 칼빈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엡2:20)'는 말씀에 근거해 교회에 앞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다.²⁾ 이는 성경 해석의 결정권이 교회에 있으며 성경의 확실성도 교회(실제로는 교황과 회의의 의결)에 있다는 로마교회에 대한 분명한 반박속에서 나온 원리이다. 오히려 교회와 전통을 판단하는 것이 성경이며 교회와 전통이 성경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증거에서 나온다. 하나님 자신만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이시고 성령의 내적증거를 떠나서는 성경말씀이 인간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³⁾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효력있는 확증에 의한 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바로 그 성령을 보내셨다.⁴⁾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은 성경의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분이시고 동시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점에서 중세에는 말씀이 교회에 종속되었다면, 개혁주의는 성경말씀과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중심이다.

레이스(J. I. Leith)는 칼빈이 스스로를 '제네바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라고 밝힌 것을 근거로 칼빈이 성경의 신학자였음을 강조하고 있다.⁵⁾ 클루스터(F. H

2)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7. 2

3) Calvin, 1.7.4

4) Calvin, 1. 11. 2

5) John H.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 A Way of Being the Christian Community (Atlanta : John Knox Press, 1977), 121. 오창윤역, 「개혁주의란 무엇인가?」(서울: 생명의 샘, 1995) 116-137. 레이스는 계속해서 칼빈이 주석가, 조직신학자, 설교자의 활동을 중

Klooster)는 개혁주의의 공식적인 원리는 다른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보다 '성경적 원칙'이라고 못박았다.⁶⁾ 이 성경적 원칙은 개혁주의적 사고를 특징지우는 원천과 규범이다. 여기에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원리 뿐만 아니라 '성경전체(tota scriptura)'라는 원리도 포함된다.

박윤선은 개혁주의를 칼빈주의와 동일시하면서 개혁주의는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는 주의'로 정의한다. 그리고 성경을 믿되 성경을 바로 해석한 그 내용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입장을 가진다.⁷⁾ 그는 칼빈주의를 기초로 삼으면서 화란 신학의 노선에서 칼빈을 수용하며 개혁신학을 소개하고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⁸⁾ 어쨌든 박윤선은 개혁주의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는 주의'라고 함으로써 개혁파의 가장 중심원리가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박형용도 영미와 한국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중에서 성경의 신성한 권위를 강조한다. 김영환은 개혁주의가 하나님말씀에 따른 개혁이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본다. 그는 개혁신학이 모든 교회전통을 '성경의 빛' 앞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본다.⁹⁾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자들과 개혁주의학자들이 개혁주의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원리를 중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

합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아래 놓여야 한다는 그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가 학생들로 하여금 성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밝히면서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읽기 위한 입문서라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서문을 소개하고 있다.

- 6) Fred H. Klooster, "The Uniqueness of Reformed Theology: A Preliminary Attempt at Discrip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14, No.1(April, 1979), 32-54. 김명혁, "세계 개혁교회와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 신학정론, 제25집(1995), 398-399.
- 7)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서울: 영음사, 1992), 79-82.
- 8) 김영재, 「한국 교회사」(서울: 개혁주의 신학 협회, 1992), 283. 여기에서는 고려파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들을 개혁주의 신앙의 체계로 보면서 바빙크와 카이퍼, 워필드, 하지, 베이컨, 벌코프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박윤선이 작성한 것이다. 박윤선은 이외에도 스킨더, 호르웨이드, 호레이다누스, 리멜보스 등 화란계통 신학자들을 읽고서 주석에서 인용했다.
- 9) 김영환, 「현대신학과 개혁신학」 363-374. 그는 개혁주의의 하나님말씀이 지고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1)오직 성경 2)성경의 신적 기원 3)성경과 성령의 밀접한 연관 4)성경메시지의 핵심으로서의 언약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그는 상당히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를 보여주는 데 루터와 칼빈을 동시에 개혁신학의 기반을 삼으면서 화란의 개혁전통과 영국 청교도 사상을 두루 포용하면서 이를 한국에 전래된 것으로 수용한다. 511-512

혁이 우리에게 안겨 준 선물인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원리를 우리는 기꺼이 수용한다. 우리는 성경을 모든 신학의 출발점과 기초로 삼는다.¹⁰⁾ 여기서 우리는 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인 '성경 중심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처한 신학공부의 현상과 목회 현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개혁자들이 성경중심의 원리와 함께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 것을 기초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신학의 방법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싶다. 신학은 이성적 작업이 요구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필수적이다. 신학이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에만 머무를 때 말씀은 설교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를 따라 루터가 신학의 방법으로 말한 기도와 묵상과 추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¹¹⁾

신학은 일차적으로 '신'지식이다. 신학은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학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구원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신학의 분야들이 이 원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교의학이 주경 신학과 분리되어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현상¹²⁾과 실천신학이 주경신학이나 교의학과 교회사

10) '성경 중심'의 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을 신학의 객관적인 탐구 대상으로 두고서 이를 이성적인 작업을 통해 체계화하기 위한 자료로만 접근하는 입장은 반대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삼위하나님에 중심이 있다.

11) 루터에게 기도는 사변이나 인간적인 추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기다림이다. 그리고 묵상은 말씀을 거둬서 바라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구는 묵상한 말씀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함이다. 유헤무, 개혁교의학(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41-42

12) 아퀴나스는 거룩한 교리가 실천적이라기 보다는 사색적이라고 말함으로써 교의 내지는 교리의 이론 우선성을 말한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보조적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1625년에 네 명의 교수가 쓴 Synopsis Purioris Theologiae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본다. 고재수는 Synopsis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생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의 실행으로 보며 이론과 실천이 반대되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본다. 고재수, 「교의신학의 이론과 실제」(서울: 디다케, 1992), 9-10. 이 점에서 한국의 교의학 과목은 아퀴나스의 노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의학 내지 조직신학 과목이 말씀속에서 자기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지나치게 이론화되거나(그래서 성경주석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할), 조직화되는(그래서 성경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계-시스템-속에 가두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의 성과들에 바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학이나 경영학 심리학등 일반학문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경향을 우려한다.¹³⁾ 신학의 각 분야의 분화와 고립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신학의 각 분야의 학문들은 오직 '말씀속에서 주어진 신지식'으로 통합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한다.¹⁴⁾ 신학 각 분야는 단순히 이론적이지만 않고 '실천적'이며 동시에 '이론적'이다. 주경신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교의학, 주경신학이나 교의학과 분리된 실천신학, 다른 신학 분야들과 고립되고 분리된 신학의 분화현상은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원리를 신학의 현장에서 구현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나아가 신학의 각 분야들이 고립된 결과로 신학과 목회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이 목회 현장에선 필요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주장된다. 신학교육이 목회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견디야 하는' 과정으로 전락해 버렸다. 신학의 실천성을 잃어버리고 학적인 관심에만 치중하는 신학교육과 천박하고 실용적인 방법론으로 전락해 버린 신학은 극복되어야 한다. 신학교육은 항상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실천적이어야 하지만 단순한 '목회 방법론'이 아니라 의미에서 말씀중심의 올바른 신지식으로서의 신학의 정의가 신학의 각 분야 뿐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¹⁵⁾

13) 허순길, 「봉사신학개론」(서울: 영문, 1995) 10-12. Trimp는 '실천'신학이라는 명칭이 함당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은 논거로 말한다. 첫째, 역사적으로 실천과 이론이 서로 우위를 다투며 상충되는 경향을 띠어왔는데, 이런 이론과 실천의 양극화 현상은 주지주의와 신비주의의 양극 현상을 낳게 되고 그 결과 실천신학은 신학의 핵심부가 되거나 단지 신학의 종속 학문이 되어 버렸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자체로 실천적이다. 칼빈은 신지식이 합리적 지식이 아니고 언약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계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신학의 영역을 이론과 실천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이며 모든 신학의 분야는 실천적이다. 셋째, 슬라이히마하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실천신학을 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론으로 보고 따라서 그에 게 실천신학은 신학연구실에서 생산된 응용신학이었다. 결과 신학과 실천, 신학교단과 설교단, 학문과 신앙의 이원론으로 귀결된다. 넷째, 실천이라고 하면 노련한 목사들의 목회 경험이나 사회 심리학적 적용등 목회자의 사역이 떠오르게 됨으로 이를 학문이라고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신학의 분야가 실천적이고 동시에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천(봉사)신학 분야의 독특성을 말한다면, 주경신학과 교회사 교의학의 성과를 실제로 '전파'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지도록' 하는데 있다.

14) 여기서 우리는 Leith가 '칼빈은 주석가, 조직신학자, 설교자의 활동을 종합하고 있다고 말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칼빈의 신학은 성경 전체에 대한 주석적이고 다음으로는 교회가 신학과 신조들속에서 성경을 읽어온 방법에 대한 주석이라고 말한다. Leith, 상계서 121

15) 이런 의미에서 신학교육이나 목회가 신학적 기초위에서 실천적이어야 하며 오직 목회 현장만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성경적 근거없이 교육학과 심리학, 경영학의 목회 기법을 도입하는 목회

2.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¹⁶⁾

하나님의 주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와 권리에 대한 배제의 선언이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는 삼위일체적으로 규정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협의를 가진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존이 성자의 왕권으로 구체화(엡1:10)되며 이는 성령안에서 실현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예정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서 그 구원의 기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결코 충분하고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확실성이 일차적으로 우리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남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은혜에 의한 '선택'으로 돌려질 때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 교리(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참된 겸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참으로 느끼게 하신다.¹⁷⁾ 헤셀링크는 하나님 주권주의를 주로 알미니안과의 대조를 통해서 말하면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고 구원의 능동적인 주도권을 쥌 수 없다는 측면에서, 나의 회심, 신앙, 선택 삶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¹⁸⁾

방법론이 되어서는 안된다. E. Farley, Theologia The Fragmentation and Unity of Theological Education (Philadelphia: Fortress, 1983) 127. 유해무, 43, 각주 54에서 재인용.

고재수는 신학원리(개혁교회 고백서에 표현된 '계시를 완전히 받아들임'과 '삼위일체'등)와 목회 실천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선, 선택 교리, 성령님의 발생이라는 원리가 어떻게 목회실천에서 드러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고재수, 18-33

16) 벨코프는 개혁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하는 개혁신학만이 신학적이라고 말한다. '루터신학은 덜 신학적이며 보다 더 인간론적이다. 루터신학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지는 않으며 비로 만물이 신적으로 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만물을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본다.'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100 이런 식의 주장의 배후에는 개신교는 로마교의 극복이고 개혁파는 루터신학보다 높은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어 있다.

17) Calvin, 3. 21. 1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기초한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게 된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고 대신 결정하는 인간이 등장한다. 인간의 심리 상태나 인간적인 결단이 구원의 중심을 차지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의지,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50:50으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전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화술의 능력을 가지고 말하며 청중의 믿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모든 것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목사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한편, 열심히 봉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숫적 성장을 하지 않음으로 실패감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하는 개혁교회가 복음주의, 알미니안적인 감리교와 침례교와 차별성이 없어져 버렸다.¹⁹⁾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의 절대성을 고수해야 한다.

그러나 개혁파에서 예정을 '생각의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어떤 계획'이라는 의미에서 접근함으로써 심각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²⁰⁾ 시간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간이전의 영원을 알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칼빈이 '우리의 예정을 알 수 있는 거울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찾으려면 우리는 우리 눈을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데 그 위에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²¹⁾고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송으로 예정을 알 수 있다.²²⁾ 따라서 우리는 '예정교리를 성경에서만 찾아야 하며 동시에 이 교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²³⁾하는 칼빈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삼위하나님의 협의와 평화언약으로 말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개혁파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을 '위격', 'perichoresis', '영원협의', '평화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왔다. 성부 하나님은 땅의 일을 위하여(엡2:18) 성자를 보내기(마2:18, 행2:23), 성자는 이 제안에 응하기로(히9:14) 성령은 그의 오심을 예비하기로 협의하셨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자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안에서 성부께 함께 나아가게 하신다(엡2:18) 그리고 그들은 성령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기 위하여 예수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엡2:22)

성경을 가르침을 따르면 예정은 인간에게 운명론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우리는 그 예정의 거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빌2:12)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빌2:13)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행동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감사함과 찬송가운데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

예정을 받아들이는 한국의 보수적인 개혁교회들이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는 듯한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을 간과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 생활을 가지게 된 것은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우리의 불행이나 게으름을 변명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3. 공교회적 신앙고백

로마교회는 개혁의 교리를 '새롭고 근래에 고안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칼빈은 이 비난을 역이용해서 개혁이 새로운 것은 개혁의 교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

18) 헤셀링크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결단 모두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신앙과 구원의 근본이고 강조점은 거기에 있다. John Hesslink, 'On being Reformed: Distinctivw Characteristic and Attempt at Discription', (Grand Rapids, 1994) 최덕성 역, '개혁주의 전통(경기도:본문과 현장 사이, 1997), 131

19) 그렇다면 예정교리를 받아들여지면 목사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오히려 전도를 통해서 실현된다. 행 18:9-11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정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일년 육개월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교리가 우리의 전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열심히 전도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잘라내지도, 인간에게 좌우되지 않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 믿게 될 복음을 그대로 전달했다. 따라서 예정교리는 목사가 게을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더욱 더 열심을 가지게 한다. 고계수, 상계서, 26-29

20) 이는 배자와 퍼킨스를 이은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작정과 예정을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소급하여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파악하는 시도로 정착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타락 전 선택설, 타락후 선택설이 논쟁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시간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역순서로서의 작정을 하나님의 신비에 까지 파고들어 파악하고자 하는 교만을 저지르게 된다.

21) Calvin, 3. 24. 5

22) 우리의 예정을 말하고 있는 엡1:3이하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 하나님의 머릿속을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칼빈을 따라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 그리고 확실성으로서의 예정을 말하고자 한다.

23) Calvin, 3. 21. 3-4

도와 그의 복음이 그들에게 새롭기 때문이라고 맞받아 말했다. 개혁의 이신칭의는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고대의 회복이다. 곧 이신칭의는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개혁은 고대교회가 고백한 신앙을 당대의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공교회성을 지향하였다.

개혁자들의 공교회성은 특히 칼빈에게서 두드러진다 그의 기독교강요는 고대교회의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서 전개하고 있다. 특히 그의 공교회성은 그의 삼위일체론에서 현저하다. 고대의 동서방교회는 그들이 고백하는 삼위에 대한 신앙을 교회내적으로 명확화하고 교회외적으로 이단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삼위일체교의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서로 다른 접근방식으로 발전에 기여하였다. 동시에 상이한 접근방식에서 고대의 두 이단인 종속론²⁴⁾과 양태론²⁵⁾의 위험이 있었다. 칼빈이 삼위일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의 주된 특징은 양 전통의 접근방식을 통합하는 데 나온 틀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이단적 위험이 없이 성경적이고, 또 고대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삼위하나님 신앙을 회복,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칼빈의 공교회적 특징이 여실히 드러난다.²⁶⁾

칼빈의 공교회성 추구는 성경적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딤후 1:14)”라고 권고한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고린도전서 15:1-3과 데살로니가후서 2:15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 또는 전통(파라도시스)이다. 이것은 사도적 교리 전통으로서 성도는 받은 바 이 전통에서 있어야 하고(갈 1:12), 말씀을 맡은 자는 이 유전을 잘 지켜야 한다(딤후 6:20).

사실 고대교회의 삼위일체 교의도 전통에 대한 이러한 반응으로서 되어진 것이다. 하르낙은 교의가 헬라철학이 복음의 토양에서 얻은 결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일방적이다. 오히려 삼위신앙은 성경내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도

적 전통속에서 교회가 함께 고백한 신앙은 교회내적으로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신앙의 내용에 대한 명확화를 요청하였고, 교회외적으로는 이단의 도전에서 변증적인 목적으로 교리를 반성하고 공식화하여 낡은 신물이었다.²⁷⁾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고대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예배의 표현’이다. 신앙을 신자식으로 본 칼빈은 신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여기에서 그의 삼위 하나님 신앙이 빛을 발한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배후신 자비에 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인데, 성부와 성자의 양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각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졌다(III.ii.7).” 칼빈이 회복코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대의 삼위 신앙이다.

이점에서 개혁 신앙은 공교회적 신앙이다. 사도적 전통을 이어받아 당대의 문제와 상황속에서 새롭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방어적 진진’이라고 부를 수 있다.²⁸⁾ 공교회성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함께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기서 ‘함께’의 요소가 중요하다. 한 성령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동일한 신앙을 고백토록 하셨다(엡 4:3-6). 빌립보서 2:11은 언젠가는 모든 입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근거로 세계교회에 자랑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교회는 마치 한국에서 오늘날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듯한 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은 교회사 전체가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한 역사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공교회적 신앙고백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회복한 반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지배적이다. 그 원인으로 우리는 특히 교회가 예배와 설교와 성례에서 공교회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거룩한 신앙의 유전으로 신앙고백을 받으며 그 것에 따라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교회적’인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한다. 교회가 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많이 실종되어 버렸다. 교회는 정체성없는 ‘군중들’의 모임이 되어 버렸다. ‘성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고백이 필요하다. 신앙고백은 딱딱한 교리체계가 아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거룩한 유전이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것은 예배이고 삶이 되어야 한다.

24) 종속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고 예수님도 다른 피조물보다는 우월하지만 단지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식의 주장이다.

25) 양태론은 원래 본질적인 한 분 하나님이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바로 본질적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역과 존재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음을 고백한다.

26) “칼빈은 동방에 잠재적인 종속설적 경향과 서방에 잠재적인 양태론적 경향을 피하려고 했다.” J. Koopmans, *Het Oudkerkelijk Dogma in de Reformatie, Bepaaldelijk bij Calvijn*, Amsterdam 1983, 66. Torrance는 칼빈의 삼위일체론이 동방교회, 특히 나찌안주스의 그레고리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T.F. Torrance, 'The Doctrine of the Holy Trinity in Gregory Nazianzen and John Calvin'(1990), in idem, *Trinitarian perspectives*, Edinburgh 1994, 21-40.

27) B. Studer, *Trinity and Incarnation* (Edinburgh:t&t clack, 1993), 28-30.

28) B. Studer, *Trinity and Incarnation*, 16

III. 결론

본고에서 우리는 개혁의 세 가지 원리를 역사적으로 다루고 이 세 가지 원리가 개혁의 중심이었음을 말하였다.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과 여러 개혁 신학자들은 '말씀중심' '하나님의 주권' '공교회적 신앙고백'이라는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를 현재에 다시 개념적으로 주장하는 곳이라고해서 '개혁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개혁이 주는 선물로 받아서 다시 우리가 사는 신학과 교회를 바라보고자 했다. 세 원리가 개념과 원리로서만 개혁주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과 원리가 다시 우리의 교회 현장에서 살아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개혁주의를 말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고 말씀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지 존재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며 자신의 교회를 개혁해 가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좇아 그분의 뜻에 따라 교회를 개혁해 가야 한다. 이처럼 개혁주의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좇아서 우리도 일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개혁하시니 우리도 개혁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혁교회는 개혁되었기에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는 말은 개혁주의를 정의하는 명제가 될 수 있다.



II. 기획 논문

주제 : 성령의 본질과 對 교회적 사역

1.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에 관한 연구 / 박상천
2.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와 개인에 관한 연구 / 신한라
3. 빈야드 운동과 신약 성경의 성령 이해에 관한 연구 / 이상규